

경상방언 관형형 ‘-었는’의 기원과 실현 양상 연구

권미영*

|| 차례 ||

- I. 서론
- II. ‘-었는’의 기원과 변화
- III. 경상방언의 관형형 ‘-었는’의 실현 양상
- IV.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상방언의 특이 관형형 ‘-었는’의 기원과 변화를 살피고, 그 실현 양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었는’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상태 지속상의 ‘-었는’은 ‘-었’ 문법화 이후 점차 감소하여 소멸하였다. 그러나 경상방언 속에서는 여전히 ‘-은’과 ‘-었는’이 공존하여 실현된다. 경상방언에서 동사어간에 ‘-었는’이 결합될 경우에는 ‘상태 지속’의 의미와 ‘과거 시제’의 의미 두 가지 모두 실현되며, 형용사 어간 및 계사 ‘-이다’에 ‘-었는’이 결합될 경우에는 ‘-은’과는 다르게 ‘과거 시제’의 의미로 실현된다. 해당 방언에서 ‘-은’이 확고한 위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었는’이 현재까지 공존하여 교체되는 요인은 ‘화자의 관심사’에 따른 임의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주제어: 경상방언, 특이 관형형, -었는, 방언문법, 실현 양상, 관형절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I. 서론

현대 국어의 시상체계는 종결형 및 접속문의 체계(서술 구성)와 관형절 체계(관형 구성)로 나뉘는 이분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분 구조는 ‘-었-’의 문법화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법화 이후 ‘-었-’은 ‘-어 있-’의 상태 지속상을 나타내는 기능이 아닌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기능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그 기능이 이어지고 있다.

최동주(2015)에 의하면 근대 국어 시기 관형절에서는 ‘-은’과 ‘-었는’이 한동안 함께 쓰이다가 다시 15세기 체계로 환원되었다. ‘-었-’의 문법화를 전후하여 ‘-었는’은 거부되었으며 전기 근대국어 시기 소멸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통시적 변화에 따라 현대 중앙어의 관형절에서는 ‘-었는’이 거의 쓰이지 않는 것에 반해, 경상방언에서는 (1)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관형형 ‘-었는’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 (1) 가. 저 할매 앉았는 바아 가 보라.
(=저 할머니 앉아 있는 방에 가 보라.)
나. 너는 섰는 꼬라지가 와 그라노?
(=너는 서 있는 꼬락서니가 왜 그러니?)
다. 저 아 누웠는 품 좀 보라.
(=저 아이 누워 있는 자세 좀 보라.)

본 연구는 경상방언의 특이 관형형 ‘-었는’을 대상으로 하여, 그 기원을 밝히고 경상방언 화자의 발화를 검토함으로써 실현 양상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그간의 연구는 ‘-었-’의 문법화와 그로 인한 대립 체계의 변화 등에 집중하여 진행되었으며, 종결형 및 접속문의 체계(서술 구성)는 연구 주제로서 많은 주목을 받은 반면 관형절 체계(관형 구성)의 연구는 상대적

으로 미약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관형형 '-었는'은 일부 중앙 문헌의 예를 통한 일반적인 변화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중앙어 및 타 방언의 일반적 흐름에 반하는 경상방언의 관형형 '-었는'에 대해서는 간략한 언급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상방언이 반영된 문헌에 나타난 관형형 '-었는'의 용례를 함께 살피고, 경상방언에서 관형형 '-었는'이 어떠한 실현 양상을 보이는지 밝히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룬 경상방언의 특이 관형형 '-었는'은 대부분 자연스러운 발화 상황에서 많이 나타나므로 생생한 발화 상황 요소가 잘 반영되어 있는 『한국구비문학대계』(달성군편)¹⁾의 설화 자료와 필자가 구성한 예문²⁾을 논의 과정에서 주로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 용례로 제시될 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 활용 자료 목록

연 도	자 료
1481년	杜詩諺解
1569년	七大萬法
1776년	念佛普勸文(해인사판)
1985년	한국구비문학대계(달성군편)

1) 경상방언에서는 관형형 '-었는'이 여전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형태가 하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에 있어 『한국구비문학대계』(달성군편)으로 한정하였다. 경상북도 달성군은 현재 행정 구역상 대구에 속하며, 경상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2) 실제 발화상황에서 사용되는 자연스러운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구술발화'에서 채록된 자료인 『한국구비문학대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듯하나, 이 자료에서는 제보자가 설화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었는'이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구비문학대계』(달성군편) 자료와 더불어 필자가 구성한 예문을 추가하여 논의에 적절성을 더하고자 한다.

Ⅱ. ‘-었는’의 기원과 변화

시상 형태소 ‘-었-’은 ‘-어 잇/어 이시-’에서 기원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15세기 중엽까지는 ‘-어 잇/어 이시-’와 ‘-엿/에시-’가 쓰이다가 15세기 말 ‘-엇/어시-’가 출현하여 함께 쓰였다(최동주 2015:129-130). 중세국어의 ‘-어 잇-’은 상태 지속상을 나타냈는데, 상태 지속상의 ‘-어 잇-’은 ‘-엿-’으로 축약되었다가 ‘-엇-’으로 변화하였다. 중세국어 관형 구성에는 ‘-어 잇-’, ‘-엿-’, ‘-엇-’의 세 형태가 모두 쓰여 ‘-어 잇는’, ‘-엿는’, ‘-엇는’으로 나타났으며, ‘-어 잇는’의 예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엿는’ > ‘-엇는’ > ‘-어 잇는’의 순서로 나타났다(안예리 2013:173). 관형형 ‘-엇는’의 용례는 15세기부터 찾아볼 수 있다.

- (2) 가. 넷 버들 맞나 처섬 짓거 가스매 다맞는 므스물 소다 내요라 <杜詩 9:17a>
 나. 붉으렛 비는 하늘 우희 안잡는 듯하니 <杜詩11:11a>
 다. 대엿 서늘호미 누엇는 안해 侵陵호고 밋헛 득룬 뽏 모해 그득호엿 <杜詩11:48a>

『七大萬法』은 경상방언적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16세기 자료인 『七大萬法』에서도 관형형 ‘-엇는’의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 (3) 虛空은 하늘 다히며 一切 萬物를 다맞는 그릇이오 여섯재는 보는 거시 니 <七大3a>

(3)의 예는 ‘일절 만물을 담았었던 그릇’이라는 뜻이 아니라 ‘허공은 하

늘팡이며 일절 만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다 맞는'은 허공이 모든 만물을 담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상태 지속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근대국어 시기로 접어들기 직전 무렵부터 '-엿/에시-'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는데 이는 '-엇/어시-'의 문법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관형절에서도 '-엇는'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엇는'이 주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는 '-엇-'이 '-어 잇-'의 축약형으로서 상태 지속상을 유지할 경우에 한해서였다.

'-엇-' 문법화 이후 관형절에서는 '-엇는'과 '-은'이 한동안 함께 쓰였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관형절의 시상체계는 종결형이나 접속문과 달리 15세기의 체계로 되돌아갔으며, 관형절에서의 '-엇는'은 '-엇-'의 문법화 이후 그 쓰임이 감소하여 전기 근대국어 시기 이미 소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³⁾ 이에 대해서 한동완(1996:96)은 '-엇-'이 과거 시제성을 확보한 이후의 '-엇는'의 결합은 '-엇-'이 갖는 [상황시의 선시성]과 '-는'의 [상황시의 동시성]이 충돌하게 되므로 정상적이지 않으며, '-엇-'의 과거 시제성이 강화됨에 따라 '-엇는'의 결합을 거부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경상방언에서는 '-엇는'의 형식이 '-은'과 계속해서 공존하여 나타났다.⁴⁾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에서 발간된 『念佛普勸文』은 18세기 후반 자료임에도 관형절에서 '-엇는'이 쓰인 여러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4) 가. 귀식 닐오되 우리들 혼 명조꺼 명을 바닷는 디라 그딤을 자브라 왔다

3) 안예리(2013:178)에서는 1920-1930년대 자료에서 '-엇는'의 일부 용례를 확인한 바 있으며, 20세기 전반기 '-엇는'의 용례는 그 마지막 단계의 쓰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4) 고영근(2007)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중세어의 잔재라고 설명한 바 있다.

나 <念海 일사古-왕랑반혼전 3a>

나. 지비 그득흐얏는 쳐즈와 지물 보비왜 슈고 당흔 시절에는 이 모들
 ㄹ디 몰홀로다 <念海 일사古-왕랑반혼전 8b>

최동주(2015:177-178,387)에서는 16세기 초반 자료인 『老乞大諺解』와 17세기 후반 자료인 『翻譯老乞大』를 비교하여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었는’으로 표현된 예가 근대국어 시기에 간행된 중간본에서 ‘-은’으로 교체된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은’이 ‘-었는’으로 바뀐 예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발견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관형절에서 ‘-었-’이 거부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상방언을 제외한 타 방언권과 중앙어에서는 관형절에서의 ‘-었는’이 점차 소멸되어 갔음에 반해, 경상방언의 관형절에서는 ‘-었는’이 계속하여 그 존재를 지켜나갔다. 이러한 경상방언 관형절에서의 ‘-었는’의 유지는 20세기 후반 자료인 『한국구비문학대계』(달성군편)에서도 많은 용례로 나타나며, 현재까지 이어져 관형절의 ‘-은’과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을 정도의 빈도로 사용되어⁵⁾ 여전히 그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Ⅲ. 경상방언의 관형형 ‘-었는’의 실현 양상

경상방언의 관형형 ‘-었는’은 현대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은’과 대체로 교체되어 사용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술된 관형사형 어미 ‘-은’의 의미와 예는 다음과 같다.

5) 경상방언 화자들의 자연스러운 담화 상황임을 전제한다.

- (5) 가. (('르'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동작이 완료되어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어미. ¶ 청바지를 입은 남자가 내 앞을 지나갔다./그는 손등에 주사기 침을 꽂은 채로 밖으로 나갔다.
- 나. (('르'을 제외한 받침 있는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미. ¶ 검은 손/맑은 물/나는 지금껏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줄로 알아 왔다.
- 다. (('르'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동작이 과거에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어미. ¶ 어제 내 팔을 잡은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나는 이 나무를 네가 심은 줄로 알았다.

관형사형 어미 '-은'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표준국어대사전>⁶⁾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5)에 제시된 '-은'의 의미와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의 논의 대상인 경상방언의 관형형 '-었는'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 실현되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자.

- (6) 가. 그러이 작은 며느리 점드록 보리이삭을 조 와서 말이지이 그 널어난 보리를 담으이까, 자기 가을 때 보다 많아졌다. 그러이가 자기 가왔는, 말란 정도를 자기가 떠가 가고 그 나머지를 큰집 보리에 다 버어 주고 간. (달성 p.27)
- 나. 있는데, 그래 옆치 불구하고 박문수 그 어른이 하도 배가 고파서, “여보” 불렀어. “도령, 그 점심 거 밥보재기 싸냈는 거 줘 주마 요 구를 면하겠다. 내가 죽기 되었다.” (달성 p.47)
- 다. ‘밑어 갖고 까짓거 뭐 내가 팔시를 많이 하면 저거는 저절로 갈챙인

6)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5다)-(5가)-(5나)의 순서로 의미·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순서에 따라 (5)를 기술하였다.

께’ 등을 세래서 자기 인자 참말로 거 저 있을 바아 끼미났는 바아 그바로 고마 줘다 영엇뵈는 기라. (달성 p.68)

라. 도끼를 저 인자 마 저노무 도끼를 가지고 뺏어가지고 그 사람은 신이고, 용덕이라 카는 아는 나이 그거 한 열댓 살, 열서너 살 뵈는 아고, 그레가 인자 도끼를 저 마 저놈한테 뺏겼는 기라. (달성 p.88)

마. 돈을 마이 주고 사가지고, 그 그참 잉어를 잡으인께, 아 그 잉어속에 구실이 하나 들었는 기라. (달성 p.111)

바. 우옛든지 우리 아버지 살리 도라 그 잇날이 살림 비실 카마 큰 양반 아이가 다. 살림, 나라 살림 살다 니러와가 카는데 그레 밤중 되 또 갔는데 그레 인자 돌미룩강 돌이 인자 갔는 기라, 가인께네 거 가서 본께 마 돌미룩이 마마 같이 가던 사람은 없고 돌미룩만 섰는 기라. (달성 p.141)

(6)은 (5가)에 해당하는 의미를 지닌 예들이다. (5가)에서 제시한 ‘-은’은 ((‘리’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하고 동작이 완료되어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6)의 예는 동사 어간 뒤에 ‘-었는’이 결합되어, 동작이 완료되어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6가)는 ‘가져왔는 (보리)’의 방언형으로, 중앙어로는 ‘가져온 (보리)’로 교체 가능하다. (6나)는 ‘짜놓았는 거’의 방언형으로, 중앙어로는 ‘짜놓은 것’으로 교체 가능하다. (6다)는 ‘꾸며놓았는 방’의 방언형으로, 중앙어로는 ‘꾸며놓은 방’으로 교체할 수 있다. (6라)는 ‘먹었는 야’의 방언형으로, 중앙어로는 ‘먹은 아이’로 교체할 수 있다. (6마)는 중앙어로 ‘들어 있는 것’으로, (6바)는 중앙어로 ‘서있는 것’으로 교체 가능하다.

(6나)의 ‘짜냈는’과 (6다)의 ‘끼미났는’과 같은 예는 동사어간에 보조동사 ‘놓다’가 결합된 것이다. 보조동사 ‘놓다’는 동사 뒤에 결합하여 앞 말이

뜻하는 행동을 끝내고 그 결과를 유지함을 나타내고, 형용사 뒤에 결합하여 앞 말이 뜻하는 상태의 지속을 강조하는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싸났는'과 '끼미났는' 역시 보조동사 '놓다'가 결합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결과 유지와 상태 지속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6)은 '-어 잇는'에서 축약된 '-었는'이 상태 지속상을 의미했던 것과 연결되는 예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관형형 '-었는'의 기원이 현재까지도 경상방언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7) 가. 보람이 가는 돈은 좃 없었는 대신에 마음이 따뜻했지.
- 나. 접때 아 팠는 거는 좀 어땡노?
- 다. 니가 읽었는 중에 젤 좋았는 책 하나 추천해도바라.
- 라. 여가 얼마나 깊었는 호수였는지 아나?

- (8) 가. 겼 었는 손
- 나. 맑 았는 물
- 다. 나는 지금껏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 았는 줄로 알아 왔다.

(7)은 형용사 어간에 '-었는'이 결합된 예이고, (8)은 (5나)에 제시된 '-은'의 예문에 '-었는'을 결합한 것이다. (5나)에서 제시한 '-은'은 (('크'을 제외한 받침 있는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하고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이와 (7), (8)의 예는 '-었는'이 형용사 어간 뒤에 결합된 것은 동일하지만, 나타내는 의미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7), (8)의 예들은 형용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되었지만, '-은'과 같이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 과거 시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9)의 예와 같이, 계사 '-이다'와의 결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 (9) 가. 혜정이 가는 곰인 줄 알았다만 여우였는 기라.
- 나. 그게 사실이었는 이상 나는 다시는 니를 안 볼 기다.

이처럼 경상방언의 관형절에서 형용사 어간 및 계사 ‘-이다’에 ‘-었는’이 결합될 경우, ‘-은’과는 다르게 상태 지속이 아닌 과거 시제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5다)에서 제시된 ‘-은’은 ((‘르’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하고 동작이 과거에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그렇다면 ‘-었는’에 동사 어간이 선행할 때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자.

- (10) 가. 날을 가리가지고 이러다 보이, 이 담뱃대, 뜨거운 담뱃대가 미느리 배에 대이뿔는 기라. (달성 p.54)
- 나. 거어서 이너무 고물상을 시작으가지고 그전에 점원이 안면이 다 있어 이 집으로 막 뺨기간다. 저거 집으로, 그 집은 장사도 안 되고 미느리도 못 삼았제. 영감이 노갈병이 들어 죽었뿔는 기라. (달성 p.130)
- 다. “야 이사람들아, 저 큰 고기 있다 캐싸인께네 뿔이 들어 있어 큰 고기 있노, 우리 한 번 가보자.” 서이가 거 올라갔는 기라. (달성 p.143)
- 라. 여가 삼대천왕에 나왔는 맛집 아이가!
- 마. 아니 여서 어제께 출발했는 아를 아직도 못만났단 말이가?
- 바. 유정이는 일본서 라면 먹었는 얘기를 몇 번을 해쌌는지 모르겠다.

(10)은 경상방언 관형절에서 동사 어간에 ‘-었는’이 결합된 예이다. (10)

의 예 모두 동사 어간에 ‘-었는’이 결합됨으로써 동작이 과거에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5다)의 ‘-은’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며, 서로 교체가 가능하다. (10가)는 ‘달아버렸는’의 방언형으로, 중앙어 ‘달아버린’과 교체할 수 있다. (10나)는 ‘죽어버렸는’의 방언형으로, 중앙어 ‘죽어버린’으로 교체할 수 있다. (10다)는 ‘나온’으로, (10라)는 ‘출발한’, (10마)는 ‘먹은’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이 중 (10가), (10나)의 ‘대이뻘는’, ‘죽었뻘는’과 같은 예는 보조동사 ‘버리다’와 결합된 예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보조동사 ‘버리다’는 ((동사 뒤에서 ‘-어 버리다’ 구성으로 쓰여))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따라서 (10가), (10나)의 예는 보조동사 ‘버리다’와 결합되어 자연스럽게 완료와 과거 시제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위에서 경상방언 관형절에서 형용사 및 계사에 ‘-었는’이 결합되었을 때 과거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 또 동사어간에 ‘-었는’이 결합되었을 때 동작이 과거에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10)의 예를 살펴보았다. 이는 ‘-었는’이 ‘-어 잇는’의 축약형으로서 상태 지속의 의미를 가졌던 것과는 상이한 것이다.

최동주(2015 : 388)에서는 전기 근대국어의 관형절에 대해 서술하면서 ‘-었-’이 과거 표지로 재분석되면서 ‘-었는’은 의미상의 모순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상황을 뜻하는 ‘-었는’만 지난 시절의 잔재로 남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었-’ 문법화 이후 [상황의 선시성]을 나타내는 ‘-었-’과 [상황의 동시성]을 나타내는 ‘-는-’가 결합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으며 ‘-었는’의 기원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경상방언의 관형형 ‘-었는’은 ‘상태 지속’의 의미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의미 두 가지로, 모두 실현되고 있다. ‘-었-’과 ‘-는-’의 결

함은 기원적으로 ‘-었-’이 상태 지속상의 의미를 가질 때 형성된 것으로, ‘-었는’이 (10)의 예와 같이 과거 시제의 의미로 쓰인 용례가 많이 나타나 는 것은 국어의 시상체계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상태 지속상의 ‘-었는’이 타 방언권과 중앙어에서 소멸하여감에도 경 상방언에는 계속해서 이어져 옴으로써, 방언 사용자들이 ‘-었-’의 문법화 이후에도 시제적 모순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었는’을 사용했 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이러한 사용이 지속되고 확대되면서 ‘상태 지속 상’과 ‘과거 시제’로서의 ‘-었는’이 비슷한 비율로 경상방언 속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상방언에서 관형사형 어미 ‘-은’의 위치가 불안정한 것은 아니 다. 오히려 ‘-은’은 ‘-었는’에 비해 더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위에서 살 펴본 것과 같이 ‘-은’과 ‘-었는’은 의미·기능상 확연히 구분되지 않고, 대 체로 서로 교체가 가능하다. ‘-은’이 확고한 위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경상 방언에는 ‘-었는’이 공존하여 쓰이고 있다. 경상방언 화자들이 ‘-은’과 ‘-었 는’을 교체하여 사용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 (11) 가. 그러이 큰며느리 생각할 때 말이지이, ‘참, 과연 우리 동서 하나는
참 잘 봤구나’ 카는 이런 생각을 한 기라. (달성 p.27)
- 나. 그래 그 카는 말에 하도 기분이 나빠지고 미늘들이 말이야 저거
또 한날 의논을 했는 기라. (달성 p.30)
- 다. 속히 가서 거게 가게 되면 그 신랑하고 상객하고는 그 산숲골 속에
다 묻어 그저 숨케놓고 이눔들이 둔갑을 해가 왔은께네, 속히 가서
더비 오라 카는 기라. (달성 p.137)
- 라. 그때 마 벼락칼로 아 번갯불, 번개칼 이눔을 마 똑 뿌라뿌가지고
그래. 입마 자리를 돌려 켰는 기라. (달성 p.138)
- 마. 그 집에 따라 가인께네, 그집에 인자 새신랑이, 인자 장가 갖 온

새신랑이 정방을 들어가주인자 바아 앉았는데, 여어, 한 여섯 살, 일곱 살 문는 아가 이래 썩 가마 신랑이 마 새파래지뿌고 새파래지 뿌는 기라. (달성 p.136)

바. 올라 가인께네 사람을 하나 큰 얘기를 하나 마 찢러 죽이췌는 기라. 그거 마 강탈할라 카다가 그렸는 기라. (달성 p.143)

(11가)는 동사어간 ‘하-’에 ‘-은’⁷⁾이 결합되었고, (11나)는 역시 동사어간 ‘하-’에 ‘-었는’이 결합되었다. (11다)는 동사어간 ‘하-’의 경상방언형 ‘카-’에 ‘-은’이, (11라)는 ‘-었는’이 결합된 것이다. (11마)는 보조동사 ‘-어 버리다’의 방언형 ‘뿌(리)-’에 ‘-은’이, (11바)는 ‘-었는’이 결합된 것이다. 보조동사 ‘-어 버리다’ 구성은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상술하였는데 반해, (11마)는 완결이 아닌 ‘새파래진’ 상태의 지속으로 보이는 것이 특이하다.

(11가, 나), (11다, 라), (11마, 바)는 각각 동일한 화자의 발화 속에서 ‘-은’과 ‘-었는’이 교체되는 용례를 찾은 것이다. 이처럼 경상방언에는 동일한 방언 화자의 발화이며, 동일한 동사어간과 결합할 때도 ‘-은’과 ‘-었는’이 교체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한 화자의 구술발화 자료가 2~3장 정도에 불과함에도 이러한 용례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실제 방언 사용자들의 자연 발화에서는 ‘-은’과 ‘-었는’의 임의적인 교체가 더욱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800여 쪽에 달하는 『한국구비문학대계』(달성군편)를 살펴보았을 때, 관

7) 최동주(2015:99)에서는 관형형 어미에 ‘-은’, ‘-을’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 사이의 대립을 서법적인 것으로 보아 각각 ‘현실 관형형’과 ‘비현실 관형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관형절의 시상체계에서 ‘∅:-다:-느-’의 대립이 유지된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견해에 따라 ‘-은’을 현실 관형형으로 보고, ‘-었는’과의 임의적 교체를 파악하기 위해 ‘∅’ 또는 ‘-느-’가 ‘-은’의 앞에 결합한 형태 모두 현실 관형형 ‘-은’으로 서술하였다.

형절에서 ‘-은’과 ‘-었는’이 결합된 다양한 예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여러 용례들을 검토했을 때 ‘-은’과 ‘-었는’이 교체되는 현상⁸⁾에 대해 동사(형용사) 자체의 특성이나 발화자의 성별/나이 등에 의한 것 등 뚜렷하게 분류되는 요인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최동주(2015:226)에서는 {-었-}이 문맥에 따라 ‘완결’, ‘결과상태’ 등의 문맥적 의미를 가짐을 살펴보고, 실제의 발화에서 이러한 문맥적 의미가 선택되는 것은 표현되는 상황의 상적특성(aspectual character) 및 화자의 관심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은’과 ‘-었는’의 교체 역시 이와 유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어는 발화시 문어에 비하면 문법적인 사항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즉, 경험에 의한 습관과 관심사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것이다. 경상방언 화자들의 자연스러운 담화 상황에서 ‘-었는’이 사용되는 것과 연결된다. 이는 발화시 방언 화자들이 ‘-은’과 ‘-었는’을 뚜렷이 인지하고 발화하는 것은 아니며, 관심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발화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경상방언의 관형절에서의 ‘-은’과 ‘-었는’의 교체를 ‘화자의 관심사’에 따른 임의적인 현상으로 결론짓고자 한다.

8) 남기삼(1978)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공시적 음운규칙의 필수성 여부’로 설명한 바 있다. 중부방언에서는 ‘-었는’에서 ‘-은’으로 바뀌는 형태음운론적 규칙이 필수적으로 적용되나, 동남방언에서는 이러한 규칙이 수의적으로 적용되어 ‘온 사람’을 ‘왔는 사람’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또 최현배(1937)에서는 어떤 꼴의 지남적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었는’을 쓰는 방법인 옛적법과 ‘-은’을 쓰는 방법인 이제법이 있다고 하며, 옛적법은 사용 범위가 좁고 이제법은 사용 범위가 넓다고 하였다.

IV. 결론

방언의 구술발화 자료를 관찰하다 보면 중앙어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자료가 종종 있다(이혁화 2012:59). 본고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은 경상방언의 특이 관형형 ‘-었는’이 그러한 경우 중의 하나이다.

경상방언에는 ‘-은’이 관형사형 어미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었는’이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고의 II장에서는 ‘-었는’의 기원과 그 변화를 살폈다. 상태 지속의 의미를 갖는 ‘-어 잇는’이 축약된 형태인 ‘-었는’이 현재의 ‘-었는’의 기원이며, ‘-엇-’ 문법화 이후 타 방언권과 중앙어에서는 관형절에서의 ‘-었는’이 점차 소멸되어 현재는 거의 자취를 감춘 것에 반해 경상방언에서는 그 쓰임이 유지되어 현재까지 이른 것으로 보였다.

III장에서는 ‘-었는’이 경상방언에서 실현되는 양상을 ‘-은’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경상방언의 관형절에서 동사어간에 ‘-었는’이 결합될 경우, ‘상태 지속’의 의미를 갖는 예와 ‘과거 시제’의 의미를 갖는 용례를 찾을 수 있었다. 또 형용사 어간 및 계사 ‘-이다’에 ‘-었는’이 결합될 경우에는 ‘-은’과는 다르게 ‘상태 지속’이 아닌 ‘과거 시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경상방언 속에서 ‘-은’이 확고한 위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었는’이 공존하여 교체되는 요인을 ‘화자의 관심사’에 따른 임의적인 현상으로 보였다.

그러나 논의를 마무리함에 있어, 달성을 제외한 경상도 내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 ‘-었는’의 예와 해당 방언형의 지역적 분포를 모두 살피고 제시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 논의를 토대로 하여 자료의 보강 및 실증적 검증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뚜렷

하게 분류 가능한 교체의 요인들과 해당 방언형의 분포 등을 밝힐 수 있기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 고영근,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2007.
- 남기심, 『국어문법의 시제문제에 관한 연구』, 탑출판사, 1978.
- 안예리, 『'-었는'의 통시적 연구』, 『형태론』 15-2, 2013, pp.170-185.
- 이혁화, 『경북방언의 지시 부정 형식 '글아이마, 글아이라, 글아이라도' 등의 구성과 기원』, 『인문과학』 95, 2012, pp.59-82.
- 최동주,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 (국어학총서 27), 국어학회, 2015.
- 최현배,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193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7-14:경상북도 달성군편』, 고려원, 1985.
- 한동완, 『국어의 시제 연구』 (국어학총서 24), 국어학회, 1996.

Abstract

A Study on the Origins and the Aspects of Realization about Adnominal Construction ‘-eossneun(-었는)’ in Gyeongsang Dialect

Kwon, Mi-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origins of the unique adnominal construction ‘-eossneun(-었는)’ and to reveal its aspects of realization.

The adnominal construction ‘-eossneun(-었는)’ originated from the ‘-eosnan(-었는)’ which the meaning of ‘continuous aspects of state’. ‘-eosnan(-었는)’ was declined and disappeared gradually after grammaticalization of ‘-eos-(-었-)’. However, ‘-eun(-은)’ and ‘-eossneun(-었는)’ still coexist, in Gyeongsang dialect.

In this study, the aspects of realization about adnominal construction ‘-eossneun(-었는)’ was examined through comparison with ‘-eun(-은)’. In the case of the conjunction of ‘-eossneun(-었는)’ in a verb stem in Gyeongsang dialect, both the meaning of ‘continuous aspects of state’ and the meaning of ‘past tense’ are realized. When ‘-eossneun(-었는)’ is combined with an adjective or a copula, it is realized in the meaning of ‘past tense’ unlike ‘-eun(-은)’.

In Gyeongsang dialect, ‘-eun(-은)’ has a position that is established. However, ‘-eossneun(-었는)’ coexists so far and is being alternated with ‘-eun(-은)’. The factor of these alternation seems to be an optional phenomenon related with what speaker interested in.

Key Word: Gyeongsang dialect, the unique adnominal construction, -eossneun(-었는), dialect grammar, aspects of realization, adnominal clause

권미영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자우편 : mi38mi38@naver.com

이 논문은 2017년 4월 29일 투고되어
2017년 6월 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6월 9일 게재 확정됨.